



가을은 그렇게 부서져 내리며 오는가

An Autumn Flavor

朱秀一 / 주수일건축사사무소
by Joo Su-Il

“투르게네프”의 책갈피 한구석
바람은 몇장의 낙엽같이
책장을 넘기며 찾아와 숨어버리네.
어두운 방(房)에서 눈을 뜨고
눈부신 창공에 비틀거리며
가을을 걷는다.
나는 코스모스 같이 온몸을 흔들며
가을과 겨울의 사이를 빠져 나온다.

달빛과 바람은 서로 섞이지 않고
틈새로 다가와
창문 사이로 어른거린다.
감잎하나 떨어져 구르는
뜰에서 그림자가 된다.
파문되어 퍼지는 물결이 된다.

수확의 들판에 서면
무수한 겨울의 침입이 다가오고
혼자 가을을 지키려는 너,
“호밀밭의 파수꾼” 같이 두팔을 벌려 하늘을 본다.
푸른 잉크 방울 하나
떨어져 물빛 안개가 된다.
눈먼 계절의 방황이 되어
부서져 내리는 가을은 그렇게 낙엽이 된다.